38호 2021년 01월 10일
발행인:안창섭 / 편집인:김동석 / 편집:박시은 / 편집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3002-9090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58 9060 0962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apto, Jakarta Pusat

재인니한국봉제협의회
안창섭회장 신년사

소의 해, 우직한 소처럼 잔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밭을 잘 일구어 땀 흘린 수고의 결실을 꼭 맺으시길 바라.

KOGA통신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38

한국인 포함 인도네시아 입국자 5일간 호텔 자비로 격리

연말 · 연초 코로나 확진자 급증 방지책…1월 8일까지 적용

▲인도네시아 수카르노하타 공항 [자카르타=연합뉴스]

(자카르타=연합뉴스) 성혜미 특파원 = 인도네시아 정부가 연말 · 연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한국인을 포함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재검사 후 5일간 호텔 격리 방안을 도입했다.

27일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이후 모든 내 ·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PCR 검사를 하고, 도착일로부터 5일간 격리를 시행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관광객 등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되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의 입국은 허용하고 있다.

장기체류비자 소지자 등은 48시간(유럽 · 호주 등 출발객), 또는 72시간(한국 등 출발객) 이내 발급된 PCR 음성 결과지를 소지해야 인도네시아 입국이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인도네시아 정부는 연말 · 연초 연휴 확진자 급증과 이에 따른 병실 부족이 우려되자 이날 밤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재검사를 하고, 5일 동안 격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검사하는 인도네시아 의료진 [AFP=연합뉴스]

해당 기간 인도네시아인 입국자는 현지 정부가 마련한 시설에 5일 격리하고,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입국자는 지정 호텔에서 자비로 격리해야 한다.

외교관을 포함해 단기체류비자(ITAS · KITAS), 장기체류비자(KITAP) 소지자도 모두 호텔에 격리돼야 한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입국 후 PCR 재검 후 호텔 격리 규정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규정돼 있으나, 상황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에서 출발하거나 영국을 경유한 승객은 입국을 금지했다.

한인 교민 · 주재원과 항공사들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혹스러운 반응이다.

당초, 내년 1월 8일까지 외국인 입국객 재검 후 자가격리는 영국, 유럽, 호주발 입국객에 한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한국인 등 모든 입국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날 저녁 확인됐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자카르타 노선은 ▲ 화요일 대한항공, 가루다 인도네시아 ▲ 수요일 아시아나항공 ▲ 목요일 가루다인도네시아 ▲금요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일요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한다.

다행히 이날 인천발 자카르타행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는 호텔격리 시행 시점인 오후 10시 이전에 도착했다.

하지만, 29일(화) 대한항공, 가루다인도네시아 탑승 예정자들은 10여만원 비용을 들여 PCR 검사를 했음에도 재검 후 호텔 격리를 해야 하므로 격리를 원하지 않으면 일정 변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6천528명 추가돼 누적 71만3천여명, 사망자는 누적 2만1천여명이다.

신 년 사

회원사 각 가정에 행복 가득하길 …

안녕하십니까. 코가 회원사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가 회원사 여러분의 가정에 큰 행복과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한 해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시 잠깐 소나기처럼 지나 갈 것 같던 일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참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 견뎌내고 견뎌내어 살아낸 한 해가 아닌가 합니다

마치 척박한 이 곳 타향에 처음 뿌리를 내리던 그 때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리셋해서 시작해야 했습니다.

예정되었던 오더가 캔슬되고 수출길이 막히고 무엇보다 사람간의 소통의 단절은 이전에도 앞으로도 느껴보지 못 할 절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지난 2020년을 잃어버린 한 해 라고도 하고 어쩌면 인류사에 반복될 재앙의 징조라고도 합니다. 어쩌면 인류의 문명 발전과 함께 우리는 더 다양한 위험과 맞서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이 코로나는 바이러스 OUT이 아닌 WITH 바이러스 시대의 첫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이해될 수 없는 상황들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마다 끝까지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원천의 힘은 혼자가 아닌 함께 하기에 가능한 일이였다 생각됩니다.

지쳤지만 서로를 보며 위로받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토고납신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묵은 것은 토해내고 새 것을 들어 마신다는 뜻으로 낡고 좋지 않은 것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즉, 옛 일은 털어 버리고 새로이 출발한다 라는 한자성어 입니다.

2021년 선물 같은 한 해가 또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졌습니다.

소의 해, 우직한 소처럼 잔꾀 부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밭을 잘 일구어 땀 흘린 수고의 결실을 꼭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미쳐 잊고 지냈던 소소한 일상도 꼭 지켜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 한국봉제협회
회장 안창섭드림

인니, 외국인 입국 2주간 금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방지책”

“1일부터 시행” … 5일 격리 조치 이어 방역 더 강화

영국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 정부가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외국인 입국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렛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2주간 외국인 입국을 막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과 현지 언론이 28일 보도했다.

전날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대상 입국 직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 및 5일간 격리 방안을 도입한 당국이 하루 만에 ‘준봉쇄’ 수준으로 방역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관광객 입국은 금지했지만, 장기 체류비자 소지자 등의 입국은 허용해왔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국제공항 출국장 전경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이번 조치는 고위 공무원 등 일부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에 적용된다고 렛노 장관은 설명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영국에서 출발하거나 영국을 경유한 승객에 대해서는 이미 입국 금지 조치를 적용한 상태다.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이날 71만9천219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하루 6천~7천명씩 보고되고 있다.

[연합뉴스]

2021년 BPJS III 등급 건강 보험료 인상

인도네시아 사회보장기관(BPJS)는 국민건강보험제도 III등급의 보험료를 2021년 1월 1일부터 25,500 루피아에서 35,000루피아로 인상했다.

BPJS 관계자에 따르면 실제 보험료는 42,000 루피아로 증가하지 않았으며, 2020년에는 정부 보조금이 16,500 루피아였고 2021년에는 7,000 루삐아로 줄었다. 따라서 2021년에는 피보험자가 매월 9,500 루삐아를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하지만 I등급과 II등급의 월보험료는 각각 15만 루삐아와 10만 루삐아로 변동이 없다.

참고로 2015년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제정하여 월급에 5% 중, 고용주가 4%를 근로자가 1%를 부담하여 BPJS에 납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신 년 사

존경하는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

2021년 신축(신축)년 흰 소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날부터 희망찬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었으면 합니다.

2020년 경자년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정말로 다사다난하였던 한 해이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우려가 많았지만, 재외국민의 국회의원 선거를 무사히 치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등록된 총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였음에도 단 한 명의 감염자도 나오지 않아 지방선거를 앞둔 인도네시아 정부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선진 방역 시스템을 활용하여 인도네시아의 코로나 19 대응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TCA 체결을 통해 기업인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여 양국 경제협력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정부와 국민이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한국의 연대와 협력에 대하여 높은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동포의 코로나 19 감염 예방과 보건안전을 위해 대사관, 한인회, 미디어 매체가 서로 힘을 모아 코로나 19 정보 공유, 협력병원 운영, 마스크 공동구매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에는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에 서명하여 양국의 경제협력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해는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 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 때문에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함께 기쁨을 나누지 못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 동포사회가 겪었던 불안과 슬픔,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에게 있어서 올 해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첫 해입니다. 코로나 19 팬데믹에 흔들림 없이, 우리 동포 사회가 우보만리(牛步萬里)의 마음으로 뚝심있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양국 국민들이 형제자매와 같이 친밀하고 특별한 친구가 되어, 양국의 우호협력과 공동번영을 위해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주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도 올 한 해 동안 한-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무역투자, 문화예술, 관광 및 인적 교류가 더욱 심화, 확대될 수 있도록 황소같이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포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동포 여러분의 질책과 격려를 거울로 삼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의 안전 확보 및 영사조력에 대한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더욱 신경을 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 개청을 목표로 준비 중인 발리 분관이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우리 국민이 발리나 롬복 등을 여행하거나 체류하는 경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격언처럼 우리 인도네시아 동포사회가 서로 협력하고 함께 멀리 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새해에는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환하게 웃는 얼굴로 서로 마주 보며 인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인도네시아 한인 동포 여러분과 가정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사업의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박태성 드림

PINE TREE THREAD

파인트리 재봉사

CONFIDENCE IN TEXTILES Tested for harmful substances
JKYO 093150 TESTEX

친환경 수성본드사 한국 특허획득 (NO:10-2009-0099067)
Pine tree 본드재봉사는 봉제시 풀림을 방지하며 직물과의 마찰계수를 감소시켜 원단의 Damage를 줄임으로 고속 stitching시 가장 이상적인 재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PT.ELBEKA S.T는 재봉사 전문 생산업체로
원사구매에서 연사, 염색, 검사까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추고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ELBEKA는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축적된 노하우,
우수한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고객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제품 개발과 품질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품명	스펙	사용용도
나이론 본드재봉사 (Nylon Filament Bonded Thread)	100D/2,3 . 210 D/2,3 280 D/3 . 420 D/1,2 840 D/3,4	신발, 가방, 장갑 (골프,야구 오토바이용 등)
나이론 본드 발수재봉사 (Nylon Water Proof Bonded Thread)		
모카신 재봉사 (Braid Thread)	0,8mm. 1mm1 1,2mm 1,5mm	신발 (운동화 및 캐주얼화)
폴리에스터 코어사 (Polyester Core Sewing Thread)	29S/2, 29S/3, 45S/2, 15S/2	수영복, 장갑, 자켓
나이론 스트레치 재봉사 (Nylon Stretch Sewing Thread)	70 D/2. 100 D/2	수영복, 니트, 자켓 등 의류용 침대, 쇼파, 장갑
스판 폴리 재봉사, 발수 재봉사 (Spun Polyester Sewing Thread)	60S/2, 60S/3, 40S/2, 40S/3 30S/3, 20S/3, 20S/4	
폴리에스테르 스트레치 재봉사 (Polyester Stretch Sewing Thread)	75 D/1. 150 D/1,2,3 200 D/1. 300 D/2	장갑, 의류, 침대, 쇼파용
재전사 및 도전사 (Anti-Static, Conductivity Sewing Thread)		안전화 및 등산화
방염, 난연 재봉사 (Anti Flammable Sewing Thread)		
야광 재봉사 및 야광 자수사 (Luminous Thread)		

PT ELBEKA SEWING THREAD
Jl. Industri Keroncong No. 20 RT 004/RW 04,
Kel. Keroncong Kec. Jatiuwung, Kota Tangerang Indonesia
Telp : (021)5931-0445,0447 Fax : (021)5931-0446 E-mail : elbekast@ymail.com
한국인 연락처 HP : 0812-888-0899 (이봉규 사장), 0811-1830-046 (Aan Suhanah)

신년사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한인사회가 되길

사랑하는 한인 가족 여러분,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 여러분 가정에 새로운 활기가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다사다난한 한해였다는 말로는 부족한, 참으로 파란만장한 한해였고 한인회의 역할이 그 어느 해보다 막중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불확실하고 통제할 수 없음을 걱정하기보단 우리는 준비하고자 했고 안전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지난 3월, 3차에 걸쳐 마스크를 구입하고 대사관에서 받은 1만장을 포함 총 8만장을 확보하여 인도네시아 확진자의 가파른 증가세에 걱정하는 한인동포에게 마스크를 무료로 배포(3월 23일, 24일)하고 지역한인회와 공유하며 상황에 따라 한인봉사단체와 주변의 추천에 의한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에 기증하는 등 대응태세를 정비했습니다.

저희는 한인 확진자가 생기기 전, 확진판정 시 현지병원에 격리되는 두려움을 해소코자 4월 8일, 메디스트라 병원과 한인회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심증상 발현 시 한인회를 통해 예약하고, 한국산 신속진단키트로 검사받을 수 있는 전담진료와 13개 지역한인회와도 마스크, 진단키트 전달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확진 시 편리한 의료 상담이 가능하도록 고려대학교 안산병원과 화상을 통한 진료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6월 25일에는 경제활동이 위축된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박스를 자카르타 주정부에 전달했고 8월 10일, 보다 안전한 의료시스템보장과 지역한인회와의 공조가 가능하도록 36개의 실로암병원과 의료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여 정보제공 및 이송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9월부터는 확진판정을 받았으나 증상이 경미한 자가격리 중인 한인에게 비상식량 박스를 전달하였습니다. 11월에는 대사관과 함께 재외동포용 한국산 K94 마스크 22만 7천 6백장을 공동구매하여 배포하는 등 언제 끝날지 모를 코로나 장기화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한인회와 대사관은 한인동포들의 불안감 해소와 바이러스 감염 대응 비상대책을 위한 모임의 자리를 수시로 갖고 상황관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고국의 코로나 19 극복과 피해지원을 위한 자발적 모금활동을 지원했고 대한적십자사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20년은 인도네시아 한인 이주 1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한인회는 1920년 장윤원 선생이 자카르타에 첫발을 내딛은 9월 20일을 기념하는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식과 관련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비대면 진행이 불가피한 상태가 지속됐습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의 한인들과 돌아봐야 하는 현지 이웃들에게 정보제공 및 마스크 나누기와 같은 실질적인 도움을 제안하는 한인사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3월부터 상황이 호전되지 않자 각종 시설운영과 출입시 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함에 따라 한인회주관의 여러 행사에 비대면 전환이 불가피했습니다.

또한 한인회는 '오랑꼬레아 100년의 서사시' 영상제작으로 한인이주 100주년 축하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인도네시아인들과 한인 남녀노소가 동참하는 축하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100년의 역사를 훑는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부통령 마루프 아민의 축사를 비롯, 각계각층의 축하 메시지와 인터뷰, 한인이주 100주년 기념을 주제로 한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 입상 우수작을 담아 9월 20일, 각 한인 단톡방과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2019년 7월 26일 출범한 '인도네시아 한인100년사 편찬위원회'는 우리의 100년을 정리하는 작업을 마무리하여 지난 12월 22일에 《인도네시아한인100년사》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과장, 왜곡, 각색, 주관적 해석이나 평가를 최소화하며 많은 자료와 다양한 지식, 예리한 시각과 철저한 조심성이 있어야 실수와 오류를 피하고 진실에 도달할 수 있기에 여러 번의 교정과 감수를 거쳐 모두가 인정하는 역사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두 해에 걸친 한인사의 제작은 코로나 사태와 공동 작업이라는 과정의 특성상 다소 험난했으나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주시고 자문해주신 한인 여러분의 응원에 힘입어 잘 마칠 수 있었기에 감사드립니다.

한인동포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생존법에 적응하며 미래를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발이 묶인 채 일상을 견뎌야 하는 갑갑함이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면 상태라 할 수 있으나, 손수 제작한 마스크를 기증하고 열악한 곳을 찾아가 환자를 돌보는 여러 한인들이 보인 인도네시아인들을 향한 이웃사랑은 선한 영향력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을 인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 앞에 주눅 들지 않고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얼굴도 모르는 적과 싸우는 지금, 시대의 상황과 삶의 시간표는 달라졌지만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것들도 많습니다. 개인 간의 신뢰회복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한인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인회도 한인동포 여러분의 신뢰에 힘입어 코로나 대응에 긴장을 풀지 않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며, 소망하는 일들이 열매 맺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인도네시아한인회 회장 박재한

조코위 대통령 새해 소망, 백신부터 인프라까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대통령비서실 유튜브 영상을 통한 신년사에서 2020년은 도전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찼지만, 2021년은 낙관적인 태도로 새해를 맞이하자고 전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월 중순부터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며, 정부가 시노백, 노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및 바이오엔택-화이자로 부터 백신공급을 대량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정부가 국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생필품 카드, 사회지원금, 사전고용카드에 이르기까지 사회 보장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며, 이전에 계획된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개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1일자 꼼파스 보도에 따르면 반뜬 주와 중부자바 반유마스는 이달 22일부터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또한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12월31일부터 우선 백신접종 대상자들에게 문자를 발송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 신년사 (대통령 비서실 유튜브 캡처)

paran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탈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왔습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탈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 용 상 : **0815 1902 4176**

‘노인보다 젊은 노동자먼저’ .. 인도네시아 특이한 백신 전략

영국 91세、캐나다 89세、독일 91세…’

▲인도네시아 발리에 중국 시노벡 백신이 도착한 5일 경찰이 백신을 수송 트럭에서 내리고 있다. 발리=EPA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각국 첫 접종자의 나이다. 주요국은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인과 함께 취약 계층인 고령층을 백신 우선 접종 대상으로 정하면서 상징적으로 이들 고령층의 첫 접종 장면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이달 둘째주 백신 접종에 돌입할 인도네시아에서는 이런 광경을 볼 수 없을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정부가 우선 도입된 코로나19 백신 70만회분(dose)을 노년층보다 생산 연령 인구에 우선적으로 맞힐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는 이달부터 의료진과 경찰, 군인 등 공무원에 이어 18~59세 노동자들이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

영국과 미국 등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서방 국가들이 노약자를 우선 접종 대상으로 결정한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가 이 같은 백신 접종 전략을 세운 것은 집단 면역에 빨리 도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데일 피셔 싱가포르국립대 감염병 분야 선임 고문은 “젊은 직장인은 활동적이고 사회적이며 여행도 많이 간다”며 “이들에게 먼저 접종하면 지역사회 감염을 빠르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감염병 전문가인 피터 콜리뇽 호주국립대(ANU) 교수는 “젊은층이 먼저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19 감염률은 낮출 수 있지만 사망률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금 시점에선 어떤 방식이 극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인도네시아가 미국, 유럽과 달리 접근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가 우선적으로 들여온 코로나19 백신이 중국 시노벡의 백신인 것도 젊은층 우선 접종을 추진하는 이유다. 해당 백신은 18세~59세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진행돼 노년층 관련 효능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2분기에 모더나 백신을, 3분기에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추가로 들여올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생산 연령 인구의 백신 우선 접종이 경제 회복 속도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책은행 만디리은행의 경제학자 파이살 라크만은 “가계 소비가 인도네시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소비 여력이 있는 18세~59세 인구의 생산 활동 복귀가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김재훈의 세무상식

인지세법 개정

김 재 훈 대표

2020년 10월 26일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2020 TENTANG BEA METERAI 공표되었고,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과거 1985년 UU No. 13으로 인지세법이 개정된 이후 15년만에 개정이 되었는데

인지세는 문서 붙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액이 들어 있는 증명서, 계약서, 청구서 등에 인지를 구매하여 붙이는 것으로 인지세를 과세하는 형태이다.

종전에는 금액이 IDR 250,000 미만의 경우에는 비과세되었고 IDR 250,000 이상 IDR 1,000,000 미만의 경우에는 IDR 3,000 인지(Meterai)를 IDR 1,000,000 이상의 경우에는 IDR 6,000 의 인지(Meterai)를 붙였는데 현행 법규는 금액이 IDR 5,000,000 미만의 경우에는 비과세이며, IDR 5,000,000 이상부터 IDR 10,000 의 인지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인지의 경우에는 금년 한 해 동안 아래 도표와 같이 사용 가능하다.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S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조코위 대통령 경제를 위해 방역 철저 촉구

조코위 대통령은 2021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경제회복을 위한 한 가지 조건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 대유행을 막는 것은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일부 제 3국으로부터 발견된 코로나-19 돌연변이의 유입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 효율성에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중국 백신을 들여오고 있다.

2020년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파탄에 시달리고 있지만 다행히도 3분기와 4분기에 새로운 투자가 시작되면서 서서히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조코위 대통령은 “새로운 투자는 경제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증진시키는 한편 노동자들에게 직업 기회와 공공 복지를 향상시킨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가지 조건이 있다. 그것은 쉽지않은 일이지만 코로나19의 유행을 극복해야 한다.” 라고 지난해 12월 31일 비서실 유투브 계정을 통하여 말했다.

코로나19 통제를 위하여 백신을 접종하고 면역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면역체계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손씻기,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등 개인 위생관리를 강조하였다.

또한 2021년에는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 모두의 귀한 해로 역사 기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신의 은총과 자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청하였다.

새해부터 대국민 영사 서비스 10가지가 달라진다.

영사조력법 시행 및 국민체감형/차세대 디지털 서비스 강화

외교부는 우리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 개선과 함께, 코로나19가 불러온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하고, 해외 체류하는 국민에게 더욱 든든한 안전 길잡이가 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의 일환으로 새해부터 대표적인 영사 서비스 10가지가 달라진다고 1일 밝혔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으로 보다 안정적인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2019년 1월 공포된 영사조력법이 하위법령 제정 등 2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1년 1월 16일 본격 시행된다.

여권 재발급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다. 2020.12.18.(금)부터 온라인 여권 재발급신청 서비스가 모든 여권사무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을 통해 시행 중이며, 민원인이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는 경우에 국내에서는 '정부24', 해외에서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1회만 직접 방문하여 여권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병역을 마치지 못한 청년세대(18세 이상) 모두가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여권으로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금융거래가 가능해졌다. 2020.12.28.(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가 시작된다.

무료전화 앱을 통해 해외에서 통화료 없이 영사콜센터가 연결하여 영사콜센터 상담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진다.

'카카오톡'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영사콜센터 상담서비스가 제공되며 위치정보시스템[GPS]을 활용한 위치기반 서비스도 본격 시행하여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영사조력이 가능해진다.

영사민원24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 변경·이동 신고, 귀국 신고, 여권 재발급 신청, 재외공관 방문예약 등 다양한 서비스를 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아포스티유 발급 대상 문서가 더욱 확대되고,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한다.

이상 영사서비스 10가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http://www.pagi.co.id/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3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카르타, 내달 24일부터 차량 배기가스 규정 위반 시 50만 루피아 벌금 부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정부는 내달 24일부터 배기가스 배출 테스트를 받지 않거나 통과하지 못한 연식이 3년 된 개인 승용차 또는 오토바이에 벌금 등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30일 꼼빠스 보도에 다르면 자카르타주정부의 샤리뿌딘 환경국장 대리는 "주지사령 2019년 66호에 따른 제재 부과를 내달 24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반할 시 오토바이는 최대 25만 루피아, 자동차는 50만 루피아의 벌금이 부과된다.

샤리뿌딘 국장 대리는 "이는 자카르타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다. 시민들이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필요하다. 잘 따라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자카르타경제신문

2021년 인지세 10,000 루삐아로 인상

정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인지세(Meterai)를 10,000루피아로 인상했다.

기존 3,000 루삐아와 6,000 루삐아 두 종류였던 인지세를 일괄 10,000 루피아로 인상했다.

정부는 새로 고안된 10,000 루삐아 인지를 인쇄하여 4일부터 배포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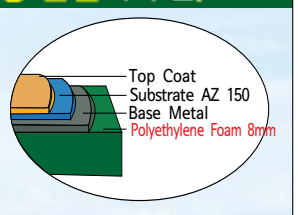
한편 기존 6,000루삐아 인지와 3,000 루피아 인지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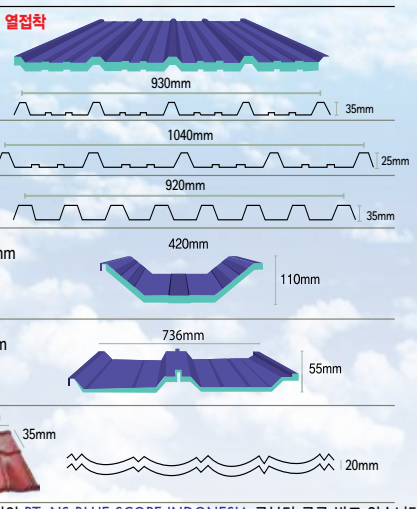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 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무엇이 중헌디

서부 유타주의 니파이(Nephi)라는 작은 마을에 사는 친구는 수백만평이나 되는 농장이 있다. 내게는 만평도 넓어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다. 그가 어릴 땐 말을 타고 농장을 누볐단다. 지금은 네 바퀴 달린 앉은뱅이 ATV로 바꾸었다. 그런데 그 농장을 팔겠단다. 누가 살까? 그 넓은 농장을.....

벼르다가 한번 시간을 내었다. 농장은 그야말로 끝이 안 보인다. 그런데 허허벌판이다. 황무지가 맞다. 다 경작하지 못하고 버려두었다. 가축을 방목한다는데 풀도 말라버린 벌판에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사료로 만들 풀을 기르는 밭은 원형 스프링클러가 물을 주는 야구장 정도나 될까? 짙푸르다. 그 밖의 농장에 살아있는 것은 아름드리나무 몇 그루뿐이다. 뿌리가 땅속 깊이 물기 있는 곳까지 닿는 모양이다. 나머지는 다 말라 버렸다. 어릴 때 그가 낚시하고 멱을 감았다던 연못은 흔적만 남아 있다. 초지는 관정을 하고 모터로 물을 끌어 올려 쓰는데 전기료가 장난이 아니라서 감당하기 어렵다 한다. 그래서 조금만 경작한다.

그런 시골의 농장을 누가 사겠는가? 물이 문제다. 넘쳐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인 것이 어디 물 뿐이겠는가. 로키 산맥의 큰 강, 콜로라도를 막아 만든, 우리가 잘 아는 후버댐은 바로 미드 호수(lake mead)가 있어 라스베이거스 유역을 적셔준다. 하류에 있는 네바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는 물 부족이다. 지하수를 파서 쓰면 땅 속의 수위가 내려가 황무지는 늘어난다. 황무지에서 증발할게 없으니 구름도 비도 없다. 겨울에 내린 눈 녹은 물로 그나마 먹고 사는 지역이 많다. 수분이 증발하면 구름이 되고 구름은 식어 비가 되어 다시 땅을 적셔주는 순환이 자연적인 현상 아니던가.

자연엔 비와 바람이 순환해야하고 인체엔 피와 영양이 순환해야 한다. 사회엔 정보와 인정이 순환해야 하고 경제엔 물자와 자금이 순환해야 한다. 난데없는 역병으로 이동을 막으니 정이 마르고 돈이 마르고 사는 게 황무지가 되었다. 농장에 아름드리 큰 나무는 살아있지만 풀과 작은 나무들부터 말라 죽었다. 니파이의 친구 농장이 바로 우리 동네, 아니 전 세계의 모습이다. 자영업자와 영세상인들이 말라죽고 있다. 은행은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못 받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10등급으로 구분하는 개인의 신용은 1~3등급이라야 은행을 찾아볼 수 있다. 소득이 있고 담보가 있고 떼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에겐 이자가 낮다.

그 다음의 4~6등급은 담보나 소득 없이는 어렵다.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24%까지 아주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한다. 대부업체는 떼일 위험에 대비해야하니 많이 받아야 할 것이다. 살기 어려워 돈을 빌리는데 이자가 부담이 된다. 못 갚은 이자는 또 이자를 낳게 될 것이다. 7~10등급은 사채업자를 찾거나 일부는 신체포기각서라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못 갚으면 살을 떼어가겠다는 계약서가 베니스의 상인에도 나오는 걸 보니 긴 역사에도 사라지지 않는 고리채(高利債)와 포도청인 목구멍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

멕시코 다음으로 큰 코를 가진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으로 좀 가면 실리콘 밸리인 팔로 알토시가 있다. 명문 스탠포드 대학이 있고 유명한 기업들이 있다. 그리 크지도 않은 집들은 비싸서 차고에서 출발해 성공한 벤처기업들의 이야기는 귀에 익다. 그런데 11월 16일자 월스트리트 저널에 캘리포니아를 떠나 텍사스로 이주하는 한 기업인이 기업하기 '더러운' 정책을 통렬히 비판했다. 실리콘 밸리의 상징인 원조 기업, HPE를 따라 내로라하는 기업들이 줄줄이 떠났다. IT 관련으로 소프트한 기업일수록 떠나기가 쉽다. 통신망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고소득자와 기업의 실리콘 밸리 탈출은 비싼 집값과 세금폭탄에 전기 공급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이라 한다. 서툰 그린에너지 정책으로 전기가 부족해 한해에 몇 만 건의 정전이 있었단다. 이게 말이 되는가? 기업을 적대시하고 고소득자를 죄인시 한다면 일자리가 생겨날리 만무하다.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 말이다. 안 그래도 ICT 기술의 발달로 원격근무와 협업이 가능하고 제조는 로봇화, 무인화, 자동화가 가능하니 비싼 지대와 인건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떼돈은 아니라도 돈을 번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면 즐겁고 소득의 재분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규제는 너무 심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떠난 기업 따라 일자리가 사라졌고, 그들이 내던 법인세도 날아갔다. 엎지른 물이다.

조기조 박사

치산치수와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하기 어렵다 했다던데 돈가뭄, 일자리 가뭄, 보금자리 가뭄을 어찌 해결하려는가?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무엇이 중헌디?' 제발 이전투구(泥田鬪狗) 말고 민초들의 돈가뭄, 일자리 가뭄, 보금자리 가뭄에 단비를 내리게 기우제라도 지내소서!

조기조(曺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인도네시아, 中시노백 백신 전국 1만개 보건소로 수송 개시

내년 3월까지 1억8천150만 명에 다양한 코로나 백신 접종

인도네시아 보건 당국이 중국 시노백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국 34개 주 1만여 개 보건소·병원으로 수송을 시작했다.

4일 안따라통신 등에 따르면 국영 제약사 바이오파르마의 대변인 밤방 헤리안또는 "전국 보건소로 코로나19 백신 수송을 시작했다"며 "우리는 여러 차례 다른 백신 접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이 있어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전날 발표했다.

밤방 대변인은 "시노백사 코로나19 백신 300만 회 분량을 먼저 수송하며, 백신은 콜드체인(저온물류)을 통해 2~8도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에는 중국 시노백사의 코로나백신이 지난달 6일 120만 회분, 같은 달 31일 180만 회분이 각각 도착했다.

바이오파르마는 서부자바주 반둥에서 시노백사의 코로나19 백신 3상 임상실험을 작년 8월부터 진행해왔다.

보건 당국은 식약청이 시노백사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을 내주는 대로 이달 15일에서 25일 사이 예방접종을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외곽 다싱(大興)구에 있는 시노백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공개된 코로나19 백신 '코로나백'.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0.9.24.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명함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텍 / 기타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PRINTING COMPANY

상상 그 이상의 속도와 퀄리티!

디지틀 프린트 서비스 시작합니다 !

도서출판/인쇄기업 광개토는
고객의 요구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2020년부터 디지틀프린트 사업을 시작합니다.
소량 인쇄는 물론 완벽한 고퀄리티를 제공하고자
디지틀프린트기를 도입해
고객만족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광개토는
지속적인 고객요구에 귀 기울이며
항상 고객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 명함 : 컴폼 후 익일배송
- 카다록, 브로슈어외 : 1권부터 가능
- 다양한 재질의 인쇄 가능

제작 문의 : 021 3002 9087 / 0858 9060 0962
pt.kwanggaeto@gmail.com / khong3000@gmail.com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간 … “선배들이 걸어온 길 조명”

1920년 9월 20일 장윤원 선생 자카르타 도착이 한인사 시발점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한 세기 동안 한인과 한인기업의 성공 진출사를 담은 100년사가 출간됐다.

재인도네시아 박재한 한인회장을 편찬위원장으로 하고 각계 한인이 참여한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22일 자카르타 한국대사관 대강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인도네시아의 한인 역사가 시작된 것은 3·1운동 자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간 [자카르타=연합뉴스]

금을 지원한 장윤원(張潤遠·1883~1947) 선생이 망명생활을 하다 1920년 9월 20일 자카르타에 도착한 사건을 기점으로 한다.

1910년대에 조선의 인삼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다녀가기도 했으나 이곳에서 결혼해 정착한 한인은 장 선생이 최초다.

한인회는 지난해 7월 100년사 편찬위를 출범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지원을 받아 1년 넘게 방대한 자료 수집과 고증을 거쳐 511쪽 분량의 책을 출간했다.

한인회장은 편찬사를 통해 “일제강점기에 이름조차 낯설던 인도네시아 땅에 조선인 군속을 비롯해 수많은 한인이 징용의 세월을 살고, 전범 재판에 몰려 목숨을 잃었다”며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찾아온 개척자들로

▲ 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출간 (서울=연합뉴스) ‘적도의 나라’ 인도네시아에 한 세기 동안 한인과 한인기업의 성공 진출사를 담은 100년사가 출간됐다.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는 22일 자카르타 한국대사관 대강당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사진은 100년 전 인도네시아 첫 이주한 장윤원 선생 가족사진.[인도네시아 한인 100년사 편찬위원회 제공]

본격적인 인도네시아 한인사회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책 한 권에 모든 한인사를 담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선배들이 걸어온 길에 밝은 조명 한 줄기를 비추는 의미가 되리라 자부한다”고 강조했다.

한인 100년사에 따르면 장윤원 선생은 은행에서 일하면서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다 일본 경찰에 발각됐다.

그는 체포령을 피해 만주로 탈출한 뒤 1920년 당시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배하던 네덜란드 총독부 고위관리의 권유로 망명했다.

일본은 1942년 3월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자마자 장 선생과 장남을 체포했다.

장 선생은 1945년 8월 종전으로 출옥한 뒤 조선인 포로감시원들의 구명과 민간인 귀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다니다 고문 후유증 등으로 1947년 11월 65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장윤원 선생의 차남 장순일은 1960년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가톨릭계 대학 아뜨마 자야(ATMA JAYA)의 공동 창립자 12명 가운데 한 명으로, 초대 공대학장과 재단 부이사장을 지냈다.

1942년 조선 청년 1천400여명이 일본군의 연합군 포로감시원으로 인도네시아에 왔고, 일본 패망 후 일부가 남아서 이주민 역사를 이어갔다.

포로감시원 가운데 양칠성은 일본 패망 후 재지배를 꿈꾸는 네덜란드에 맞서는 인도네시아 독립군에 합류해 폭탄 전문가로서 이름을 날리고,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됐다.

인도네시아에는 포로감시원들과 함께 조선 소녀 수십 명이 위안부로 끌려왔으며 그 가운데 고(故) 정서운 할머니가 2004년 숨지기 전 위안부 시절을 육성으로 남겨 세상에 알렸다.

100년사는 기존 자료를 인용해 충남 서산 출신 여성 신모씨가 1942년 3월 취업을 미끼로 일본 경찰에 유인돼 자카르타로 끌려온 뒤 지금의 대통령궁 인근 위안소에서 생활하다 1944년 8월 19일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자바섬뿐만 아니라 수마트라섬 빨렘방, 암본, 보르네오섬 발릭빠빤 등에도 조선인 위안부가 끌려왔던 것으로 추정했다.

이밖에 종전 후 인도네시아 연극영화계 대부로 꼽힌 허영, 포로감시원이면서 네덜란드인 포로들을 도와 은인이 된 김만수, 포로감시원으로 왔다 현지 최초의 속옷(메리야스) 공장을 세운 유형배 등이 소개됐다

1968년에는 한국의 해외투자 1호 기업인 한국남방개발(코데코), 1969년에는 목재사업을 하는 한인기업 코린도가 설립됐고, 1973년 한–인도네시아 정식수교가 이뤄졌다.

▲ 1977년 ‘칼리만탄의 왕’이라 불린 최계월 코데코 창업주 [코데코에너지 제공]

한국·한인 기업들은 자원개발에 이어 1980년대 중반부터 신발·봉제·섬유업에 투자했고, 1980년대 말 삼성전자·LG전자, 2000년대 포스코, 롯데그룹, 한국타이어 등이 진출한 뒤 작년부터 현대자동차가 서부 자바에 완성차 공장을 짓고 있다.

한인 100년사 편찬위는 “현지에서 맨땅에 일군 한인 토종기업의 눈부신 자력 성장과 모국 대기업의 투자는 관련 기업 동반성장의 원동력이 돼 양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며 “올해 기준 인도네시아의 한인기업 2천여개가 현지인 100만여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편찬위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무명 한인들의 숨겨진 이야기까지 세세히 담지 못해 아쉽다”며 “한인사의 진정한 영웅은 이국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꾸려나간 무명의 한인들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100년사 표지에는 장윤원·양칠성·정서운 할머니와 역대 한인회장인 최계월·승은호·신교환씨의 모습이 담겼고, 뒷면에는 한인회장 가운데 신기엽·양영연·박재한 회장의 모습이 그려졌다.

[연합뉴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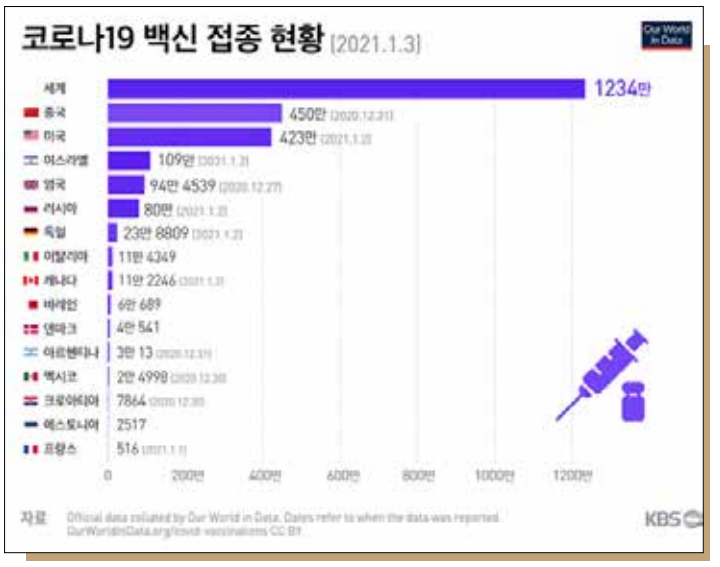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2021년 첫 주 전 세계 백신접종 현황은?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희망을 가져오리라는 기대와 함께 새해가 밝았습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인 시작된 백신 접종도 곳곳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세계 백신 현황은 어떤 지, 새해 첫 주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ourworldindata'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현재 36개국 1,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WHO의 집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확진자는 8,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규모를 따지면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 접종 돌입 각국 1200만 명 넘어서

국가별로 볼까요. 미국은 지난달 14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했는데, 새해 1월 2일까지 약 20일 간 총 422만 여명이 접종을 받았습니다. 하루 평균 20만 명 수준입니다. 접종 속도는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시설 인원은 28만 여명이 접종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상황이 악화된 영국은 화이자 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4일부터 승인했습니다. 지난달 8일 접종한 후 4일 현재 94만 여명이 접종했습니다.

백신접종과 관련해 BBC는 '영국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승인하며 백신 두가지를 혼용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는 외신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BBC는 '영국 정부가 백신 혼용을 권고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에 대해 "영국의학저널이 '영국 정부가 백신 혼용에 대한 권고를 내린 바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 WHO "60개 백신후보물질 임상 진행 중"...BBC "英 정부 백신 혼용 권고한 적 없어"

WHO가 지난달 29일 발간한 '백신 임상시험 현황보고'를 보면 현재 국제적인 임상시험이 진행중인 물질은 60개이며, 172개 물질이 임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러스의 단백질 조각을 항원으로 이용하는 방식'(Protein Subunit)이 18개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같은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 9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DNA 정보를 이용한 방식이 8개, 사백신 방법이 8개, RNA 정보를 이용한 방법이 7개 등입니다. 접종 방식으로는 2회 접종방식이 37개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맞는 방식은 10가지입니다.

특히 3상을 진행하고 있는 백신후보들은 모두 11개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불활성화한 (inactivated) 사백신이 4개, 아트라제네카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기법이 4개 등입니다.

이 가운데 mRNA의 모더나가 최근 3상 시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 보고서를 보면 총 3만4백2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94%의 효능을 보였습니다. 심각한 이상반응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휴비스 · FITI, '생분해 폴리섬유 사업화'에 힘 합쳐

생분해 섬유 환경표준 수립 및 기술정보 교류

▲ 휴비스와 FITI시험연구원은 '고내열 생분해 폴리에스터 섬유개발 사업화'를 위한 협약을 21일 체결했다.

휴비스(대표 신유동)는 FITI시험연구원과 '고내열 생분해 폴리에스터 섬유 개발 · 사업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약을 지난 21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생분해 평가를 진행하고 생분해 섬유용 신규 환경마크 표준 수립 및 기술정보 제공을 위해 이뤄졌다.

올해 휴비스가 개발한 고내열 생분해 폴리에스터 섬유는 기존 폴리에스터 원료인 TPA(테레프탈산)과 EG(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하는 공정에 생분해가 가능한 원료를 추가해 사용 후 매립하면 썩는 자연분해 소재다.

내열성과 내구성이 우수해 장기간 사용하는 의류, 필터 등에 적용할 수 있고 매립시 3년 이내 생분해되는 친환경 섬유다. 이전의 생분해 섬유인 PLA(Poly Latic Acid, 옥수수 젖산)는 생분해는 우수하지만 내구성과 열에 약해 염색 및 관리가 어려웠다.

이 제품 개발로 양측은 생분해 평가 방법도 업그레이드했다. 기존 생분해 평가는 일회용 플라스틱 기준에 맞춰져 있어 생분해 섬유 같이 장기간 사용 후 매립되는 섬유소재의 생분해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FITI는 휴비스의 차별화 소재 생분해 평가를 진행함으로써 관련 평가에 대한 노하우 및 숙련된 분석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다.

양 기관은 신뢰할 수 있는 생분해 섬유용 신규 환경 표준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제안하고 생분해 섬유 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휴비스 얀(Yarn)사업본부 김봉섭 본부장은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사용이 더욱 증가하는 문제로 생분해 소재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환경에 도움되는 기술이 기술로만 그치지 않고 실생활에 접목돼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CO융합섬유연구원,

'5G 기반 봉제 스마트팩토어' 사이트 개소식

ECO융합섬유연구원(원장 김남영)은 '5G 기반 봉제 스마트팩토어 실증사이트' 개소식을 22일 개최했다. 이번에 구축된 실증사이트는 봉제 공정에 빈도가 가장 높은 인터록, 오버록, 본봉 등 3가지 공정의 로봇 구현과 5G 기반 MEC(Mobil Edge Computing)을 통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 다온오토메이션 외 9개 기업이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연구원은 "AVG(Automated Guided Vehicle)를 사용한 물류 무인 운반 등 첨단 봉제 기술이 집합돼 있다"며 "국내 최초로 구축된 스마트 봉제공장이자 호남 최초 5G 섬유봉제 분야 실증사이트"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우범기 정무부지사, 익산시 유희숙 부시장, 기가코리아사업 이성춘 단장, ECO융합섬유연구원 김남영 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섬유신문

포스트 코로나, 新소비자 권력 시대가 온다

스마트 디바이스 익숙한 MZ세대가 주축
온오프라인 경계 허물어지고 자리 바꿈
'경험과 가치' 소비 성향은 더 크게 가속

▲전문가들은 포스트코로나 메가 트렌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Digital Transformation) 빅데이터(콘텐츠) D2C(Direct to Customer) MZ세대를 꼽았다.

#미국 스타트업 '베타(b8ta)'는 오프라인에서 상품을 팔지 않는다. 오프매장은 단지 IT와 잡화 체험을 하는 곳일 뿐이다. 매장 천장에 15~24개 특수 카메라를 설치해 고객 데이터를 수집한다. 입점 브랜드는 이 고객 데이터를 제공받는 대신 월 250만원가량의 구독료를 낸다. 고객은 매장에서 상품을 체험하고 온라인에서 구매한다. 연간 300만명이 방문한다.

2015년 실리콘밸리에서 시작한 베타는 현재 메이시스 등 5곳에서 총 9160만 달러(약 900억원)을 투자 받았다. 미국과 두바이에 24개 매장이 있다.

#일본 안경 제조기업 '진스(JINS) 홀딩스'는 지난해 온라인쇼핑몰에 가상 증강현실 기술 '진스 브레인'을 도입했다. 소비자가 진스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얼굴 사진을 찍으면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을 추천해준다. 2019회계연도(2018.09~2019.08)에는 전년대비 12.8% 성장한 618억엔(약 6500억원) 매출을 기록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강력한 온라인發 공습이 시작됐다. 시장 주도권은 소비자가 쥐고 주 무대는 온라인이다. 오프라인 매장은 더 이상 상품을 팔지 않고 브랜드 체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AI(인공지능) 등 IT기술 발달로 초실감화 서비스 도입이 늘어나면서 온오프라인의 본격적인 자리바꿈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는 코로나19 장기화가 불러온 소비자 라이프스타일과 섬유패션산업의 변화를 조명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전문가들은 2021년 섬유패션 메가 트렌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T, Digital Transformation) 빅데이터(콘텐츠) D2C(Direct to Customer) MZ세대를 꼽았다. 여기에 베이비부머와 X세대의 부상, 디지털기업과 전통기업간 양극화가 또다른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종식되면 패션산업 큰 수혜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비즈니스의 주무대인 온라인이 뉴노멀 세상의 표준이 된다. 작년에는 자체 생산력을 갖춘 D2C 브랜드와 온라인을 강화한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 남았다.

기업들은 뉴노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세상을 경험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소비자 권력시대의 도래다.

디지털로 무장한 신인류, 포노사피엔스의 출현

성균관대 서비스융합디자인학과 최재붕 교수는 "상품을 파는 기업이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권력을 가진 시대가 도래했다"고 강조한다. 그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쓰는 신인류, '포노사피엔스' 출현으로 이전 세대와 격차가 '문명의 대혁명'이라고 할만한 수준으로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신인류는 강력한 IT정보와 스마트 디바이스 활용으로 자발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며 팬덤을 만들고 이들은 다시 경제구조 전반을 변화시키는 촉매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외에서 넷플릭스 무신사 젝시믹스 같은 브랜드는 강력한 MZ 세대 충성 고객을 기반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고객 초맞춤화 시대에 대비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업은 고객에 맞는 초맞춤화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광석 교수는 "오프라인의 주 역할이었던 경험이 온라인에서도 가능한 시대가 됐다.

코로나 이후 소비자들은 '경험 후 구매' 소비 패턴이 정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따라잡기 위한 더욱 방대한 고객 데이터는 필수다. 김 교수는 "미래 연료는 데이터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언택트가 표준이 되는 과정에서 (고객 소비성향을 보여주는) 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지연 보스턴컨설팅그룹 파트너는 "온오프라인 역할이 바뀌고 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전후의 모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프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매장은 고객 경험과 체험을 극대화하는 공간과 온라인 플랫폼처럼 중개 역할을 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곳이 미국 패션기업 '아메리칸 이글'이다. 아메리칸 이글은 미국 대학가 근처 매장을 커뮤니티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이곳 매장은 대학생들이 많이 찾는 세탁소(Laundry) 기계를 운영하거나 스페셜한 음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상품을 팔지 않고 소비자에게 브랜드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것이다.

▲2015년 설립된 미국 스타트업 베타(b8ta)는 월 250만원가량의 구독료를 받고 고객의 소비 행태 데이터를 제공한다.

디지털 기업은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2021년 코로나19가 종식될 경우, 대표적인 소비 보복이 일어날 수 있는 산업으로 패션부문을 꼽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언택트 비즈니스의 주무대인 온라인이 뉴노멀 세상의 표준이 된다. 작년에는 자체 생산력을 갖춘 D2C 브랜드와 온라인을 강화한 기업만 시장에서 살아 남았다.

기업들은 뉴노멀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세상을 경험을 했다. 가장 큰 변화는 본격적인 소비자 권력시대의 도래다.

▲일본 안경기업 진스(Jins Holdings)는 얼굴 사진을 찍으면 가장 잘 어울리는 안경을 추천해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했다.

야외 골프연습장
Mega Alam Park

Mega Alam Park 야외골프 연습장에서
쾌적함과 시원한 샷을 느껴보십시오
이용시간 : 08:00 ~ 22:00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야외 골프연습장
타석수 : 34타석 (층당 17타석)
잔디종류 : 천연잔디
연습장 사이즈 : 길이 200yard × 폭 50yard
정면 그물상단까지 280yard, 300yard 장타자도 연습가능

상업공간 임대 합니다
건물내
공사 완료시점 : 2021년 1월 30일
4층 철근 콘크리트건물
(층당 45m x 22.5m = 약 1,000sqm)
30sqm이상 분할 임대가능 (합리적인 임대료)
야외상업공간
canteen / 물놀이장 / 어린이 놀이터
낚시터 / BBQ가든

광고주 모십니다
연습장내 배너 광고
정면 그물망 : 폭 50yard x 높이 20yard
측면 그물망 : 폭 200yard x 높이 20yard (분할광고가능)

문의 및 상담
한국어,영어
전화번호/WA : 0813 8767 5344
카톡 : andyson870
E-mail : ydson870@naver.com
인니어, 영어
전화번호/WA : 0813 1482 6930
주소 : Jl. Raya Pagedangan, Babakan, Kec. Legok, Tangerang, Banten 15820

태평양물산, 지속가능한 패션사업 투자앞장 ... 리워크 등 전개

태평양물산(대표 임석원)이 지속가능한 패션 사업의 일환으로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리워크(RE:WORK)'를 시작한다. 태평양물산의 '리워크(RE:WORK)'는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을 직접 분해하고 재조합해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을 제작한다.

본사 건물에서 업무 중 발생하는 폐원단과 자재 등의 의류 폐기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하는 친환경 활동을 진행해오고 있다. 'RE:WORK' 프로젝트는 친환경 활동으로 수거된 의류 폐기물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의류, 가방, 마스크 등의 다양한 패션아이템으로 선보인다.

관계자에 따르면 "업사이클링 프로젝트 'RE:WORK' 상품은 기존 친환경 상품과 함께 향후 해외 바이어들에게도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면서 "지속적으로 업사이클링 의류 및 소품 제작을 확대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지난 18일에는 지속가능한 패션 브랜드 'RE:ON' 컬렉션을 진행하고, '프라우덴(PRAUDEN)'과 합성 충전재 '신클라우드(Syn-Cloud)' 브랜드 등을 통해 글로벌 리사이클 기준(GRS) 인증을 획득한 리사이클 다운/폴리에스터 충전재를 출시, 지속가능한 소재 공급에 앞장서고 있다.

한국섬유신문(http://www.ktnews.com)

티케이케미칼 '아라크라' 고기능 스판덱스 시장 진입 초읽기

무한대 의미 담은 BI 공개…내년 본격 진출

ARACHRA

▲티케이케미칼 스판덱스 브랜드 '아라크라'는 무한대 확장의 의미를 담은 신규 BI를 공개했다.

티케이케미칼(대표 이상일)은 아라크라 스판덱스 BI를 새로 공개했다. 기능성의 무한대, 적용분야의 한계 없는 다양성 및 신규 차별화 제품 개발에 대한 의지를 무한대 기호로 형상화했다.

'기능성의 무한대'는 프리미엄 스트레치, 팬시감 등 스판덱스 고유 기능을 뛰어넘는 소재개발을 표현했다. '다양성의 무한대'는 차별화된 기능성을 바탕으로 레깅스 및 고품위 제품으로 의류소재의 다영성에 부합하는 소재를 의미한다. 또 '기술의 무한대'는 저온 및 재생 스판덱스 등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려는 의지를 담았다.

티케이케미칼은 기능성과 다양성을 확장시킨 '아라크라 하이핏(Hi-Fit)'과 '아라크라 수퍼 파워(Super-power)'를 2020년 개발 완료하고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고기능성 스판덱스 시장에 진입할 계획이다.

이상일 대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편안한 레깅스 등 애슬레져에 대한 소비증가는 물론 마스크 등 새로운 저변 확대로 스판덱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은 2021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제8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작품명 : Swan of art nouveau 엄하영 作

▲작품명 : 백화난만 이영채 作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와 창간 39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산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 · 패션 · 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 · 육성과 관련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윈-윈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 · 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 · 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http://www.ktnews.com)

1991 — 30 YEARS — 2021

교민 여러분 덕에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굳건히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을 위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동중 인도네시아 임직원 일동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주요 브랜드 2021 광고 촬영 스토리 (1)]

당신의 가을 옷장을 채울 옷은?

에티카

화성에 있는 에티카 스마트 마스크 팩토리에서 화보를 촬영했다. 미래지향적이고 패셔너블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다. 모델 김다미, 김혜준과 상황을 연출했다.

케이스티파이 X 기묘한 이야기

무신사는 모바일 케이스 케이스티파이와 넷플릭스 기묘한 이야기 컬렉션을 단독 한정판매했다. 11월 6일 기묘한 이야기의 날을 기념해 만든 협업 컬렉션이 7일만에 조기 완판된 기록이 있다.

지방시 뷰티

지방시 뷰티는 강다니엘과 공식 모델 계약을 연장했다. 모델이 가진 독보적 매력이 브랜드 이미지와 부합했고, 지난 활동에서 보여준 시너지 효과를 인정해 앞으로도 함께하기로 했다.

루이비통

스위스 출신 현대미술가 우르스 피셔와 협업했다. 기성복, 신발, 액세서리를 넘어 매장 쇼윈도와 진열 작품, 디지털 콘텐츠까지 우르스 피셔가 디자인했다.

BEST COMPRESSOR NO.1

한신 에어 콤프렛서

콤프렛서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4. 20 kgf/cm² 중고압 콤프렛서 취급

대 표 / 유 성 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